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선상에 있는 리더십을 가질 때에 그 리더십은 힘이 있습니다. 함께 이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21세기를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편주}

하 해 룡
(목사, 벨엘교회)

지금부터 7년 후면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력 등을 비롯하여 종교계의 변화와 세기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현재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도 예외는 아니다. 새 세기를 향한 세계 선교와 목회적인 과제에 대한 재정립이 긴급히 요청되는 현실이다. 특별히 교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목회자의 중요성이란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역시 전문성을 지닌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전제하에서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함과 동시에 시급하다고 본다.

1. 급변하는 세계

급변하는 세계를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편주)이 글은 기독교보에 실렸던 글로서 기독교보의 양해하에 실음을 알린다.

오늘의 현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추론 또는 전망일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최근 수년 동안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특별히 이 세계(지구촌)는 이념의 차원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대 이념의 대립과 냉전체제의 분위기는 없어지고 탈냉전 또는 탈이념의 세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이다. 이제 우리는 이념을 초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공간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세계는 국경이 없어진 하나의 세계로 지향해 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공동체의 결속된 의지와 실천에서 그 한 면모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전자과학의 덕분으로 세계가 지극히 좁혀져 있는 현실이다. 알빈 토플러의 말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는 농경사회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의 개발과 발전은 세계를 얼마나 좁혀 놓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정보화시대란 엄밀히 말하면 비밀이 없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서로의 거리를 좁혀 버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온 세계가 평화와 민주화, 그리고 공존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세계적인 과제가 누구나 어느 국가에게나 다 주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현실 감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전망할 때에 고도의 지식사회의 출현(피터 드라커)을 예견하게 되고, 노령화 사회의 출현, 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첨단과학의 발전, 래저블의 물결을 타고 인간이 꽤 즐길 수 있는 사회의 출현을 전망할 수도(특히, 한국 등)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즈환자의 팽창, 평화에 역행하는 전쟁들, 산업화 이후의 커다란 증후군으로 드러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의 문제,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가오는 소외의식과 고독 때문에 생기게 될 사이버종파와 자살의 증가는 결국 사회문제의 중요한 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심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하여 해결해야 할 인간의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교회, 즉 선교적, 목회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2. 21세기의 교회의 모습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모습을 전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를 기초하여 전망해 볼 수는 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첨단과학의 발전과 고도의 지식사회가 출현하고 좁아진 세계가 현실로 나타날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교회의 국제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지역성을 가졌던 교회가 세계성을 띤 성격의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권도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다. 서방세계를 중심하였던 교회의 중심권이 중국과 한국을 축으로 하는 동양 내지는 아시아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흔히들 사용되어 왔던 말인 바, 제3세계권에서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교회의 중심권 이동이 예견된다. 중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기독교신앙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전망된다.

교회성장을 말하는 학자들 중에는 다가오는 세기에 세계 전반적인 교회의 부흥이 전망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주로 오순절교파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새 세기에 선교적 열정과 목회의 성숙성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 다가오는 세기엔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적

상대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게 될 것이다.

교회의 부흥을 예전하는 반면에 세속주의의 악영향의 물결은 정비례하여 거세게 침투해 올 것이다. 더러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교회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속단하는 자들도 있다.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만 가져도 좋은 설교를 받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도 있을 것인데…”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또한 기독교를 타종교와 동일 선상에 놓는 기독교 상대주의는 엄격히 배격해야 한다. 만약 기독교의 독특성을 상대화하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다. 성서계시에 근거한 신앙의 내용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인간지성의 산물인 과학의 발전이 극대화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서로 돌아가는 순종의 신앙이 더 요청되는 것이다. 성서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성서를 떠나서 올바른 신앙을 논할 수 없다.(존 칼빈)

셋째로, 다가오는 세기의 교회의 지도력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역하는 세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신도란 남자교우와 여자교우를 통칭하는 말이다. 여성활동이 활발해질 다가오는 세기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의혹을 가진 자들도 있을지 모르나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과 동시에 두드러진 여성들의 활동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도 교회내에서 여성신도의 봉사와 활동은 얼마나 열정적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여성 안수문제(장로, 목사)에 있어서 그 길이 넓혀져 있지는 않으나 이 문제의 해결도 시간문제로 본다. 세계성을 지닌 교회의 위상을 상상해 보자.

그러면 지도자는, 즉 목회자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어떠해야 하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사(담임목사, 교역자) 한 사람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이끌어온 셈이다. 한 사람의 지도력에 거의 의존해 왔다는 뜻이다. 이같은 지도력은 대개 전제형, 또는 독재형 지

도력으로서 다가오는 세기의 지도력은 될 수가 없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회중과 함께 가면서 인도하는 이네이블러(Enabler, 물이꾼,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목회자 혼자 독주하는 그런 지도력은 21세기의 교회의 목회자의 덕목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통하였으나 다가오는 세기에는 협력하여 모든 일은 처리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3. 새 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

목회자에 대하여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도 하고 내용의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에는 다음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는 바람직한 목회자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일생 동안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자기정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된 겸허한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목회자 직에 대한 세속화의 문제가 교회 성직자의 자질을 격하시키고 있으며 직업주의에 전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지닐 때에 세속적인 물질, 명예, 그리고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소명의식이 없는 단순한 신학지식만으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된다고 하여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

둘째로, 바람직한 목회자는 교회와 목회를 바로 알아야 한다.

몰트만 교수의 주장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론이 교회론의 교회의 기초요 머리이며, 주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궤도의 말과 같이 “교회는 공동체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이다.” 이같은 표현은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자기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변화시키며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판과 갱신의 도전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일치하도록 교회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전제는 목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도록 그 터전을 제공한다.

목회란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떼를 치는 그같은 이해에서 목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김에 기초하여 교역자가(또는 평신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섬기는 일로서 교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또한 리차드 본디는 “목회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목회 또는 교역의 개념에서 우리 자신을 재검검해 보아야 하겠다.

세째로 바람직한 목회자는 시대를 알아야 하겠다.

목회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초월의 세계를 소개하는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섬기는 자(왕)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는 것이다. 동시에 목회와 선교의 장은 그 시대와 역사의 현장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철저하게 역사의 현실 속에 역사를 이루어 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국내외의 역사적인 현실과 변화를 알고 교회(교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각성시키는 사명이 있기에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칼 바르트 교수가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한 말은 오늘의 목회자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넷째로, 바람직한 목회자는 현장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현장의 신학자가 되어야 바람직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카네기 칼리안의 명제다. 목회자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은 신학교에서만 통하는 학문이고 목회현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

으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신학이 목회 현장의 프락시스(실천)로 나타나야 한다. 세계사의 대 변혁기와 남북통일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선교적 과제를 지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으로서 현장의 신학자상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같은 목회자 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고 전도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였던 사도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목회자상이다.

한마디 더 부언하는 것은 참된 목회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목회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1세기도 성령이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해야 한다.